

M2641.000400 아시아 근대 문명 연구 3-3-0

Studies in Asian Modern Civilizations

아시아의 근대문명은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들을 포괄하는 근대성(modernity)의 등장 외에도 식민통치라는 정치적·경제적 행위와 이에 따른 서구의 학제 구축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강의는 지식의 생산을 통해 타자를 지배하고자 한 서구의 담론을 지적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출발하여 후기식민주의(post-colonial studies)라 불리는 일련의 새로운 방법론과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근대문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구 근대성의 발달과 제문제, 그리고 이러한 ‘서구’ 근대성이 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번역되고 이식되면서 증식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The study of modern Asian civilizations requires not only the understanding of modernity, i.e.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sociated with capitalist development, but also the political and economic acts of colonization and the academic disciplines of the West. The structure of this course takes Edward Said's Orientalism (1978), which exposes the discursive domination of the West over the Others through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s a point of departure, and leads to the study of modern Asian civilizations through the entirely new field of inquiry often called post-colonial studies. Particularly, we will be analyzing the rise of modernity and its major issues in the West, and questioning how such ‘western’ modernity may be translated, transplanted, or multiplied into Asian cultures and societies.

M2641.000500 아시아 근대 사상 연습 3-3-0

Seminar in Modern Asian Thoughts

이 수업은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정치사상을 탐색한다. 주로 서아시아, 인도·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근대” 이후 나타난 다양한 사상 조류, 특히 각 지역에서 등장한 “아시아” 담론, 민족주의 이론 및 그와 연관된 사회문화 담론을 살펴본다. 탈식민지기 이후 아시아의 민족주의/식민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학계의 논쟁, 일본 등지의 “아시아”에 대한 이론과 담론, 그리고 이런 논의의 역사적 배경 등을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This course explores political thoughts in Asian societies. It focuses on diverse schools of thoughts in West Asia, India, Southeast Asia, and Japan after the “modern” era, especially discourses on “Asia”, theories on nationalism and sociocultural discourses related to them. Students will study scholarly debates on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Asia after the decolonization, theories and discourses on “Asia”, in Japan and other areas,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ose debates by analyzing diverse sources.

M2641.000600 아시아 고전의 근대적 해석 3-3-0

Modern Interpretations of Asian Classical Literature

아시아 고전문학은 근대 서구문학 조류의 영향을 받기 이전 전통적인 양식으로 쓰인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이 중 근대 이후 새롭게 조명되면서 해석 및 번역된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또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문학으로 자리 잡은 고전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러한 문학 작품들에 대해 일어난 역사적, 미학적, 이론적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구 학자들의 담론 및 연구대상이 된 작품들이 선정되고 번역된 과정과

함께 ‘서구’의 관심이 아시아 각 국가의 정체성 및 문학적 전통을 구축하는데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sian classical literature includes a variety of genres written in traditional styles before the advent of modern Western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ies. This course will focus on representative works of Asian literature interpreted or translated into Western languages after the modern period and as a result, have gained status as national or “Asian” classics. While reading such representative texts, we will discuss the historical, aesthetic, and theoretical issues related to each text. We will also discuss how particular works were selected and translated to be objects of discourse and research by Western scholars, and finally converged with a process of building a national identity or literary tradition of each Asian nation.

M2641.000700 아시아 문학 연습 3-3-0

Seminar in Asian Literature

이 과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세계 문학”의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아시아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아시아 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설 학기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전공(일본, 인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특정 작가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대표적인 작가로 나쓰메 소세키, 뽀렘찬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 등을 꼽을 수 있다.

Students of this course will be closely reading the works of representative Asian writers to understand Asian literature in the context of “world literature.” We aim to attain a more balanced view towards Asian literature by providing an alternative to a Eurocentric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tudents, the course will be comprised of authors from each major area (Japan, India and Southeast Asia, West Asia) or may focus on a particular writer such as Natsume Sosekei, Premchand, Rabindranath Tagore, Pramodya Ananta Toer, etc.

M2641.000800 아시아 근대문화와 예술 연구 3-3-0

Studies in Modern Asian Cultures and Arts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은 근현대 서구 미술 및 미술사와의 조우를 통해 새로운 학제의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강의에서는 아시아 근대 문화와 예술의 이해에 핵심적인 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론과 그 역사적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아시아 근대 문화와 예술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서구 예술의 조류뿐 아니라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주의, 후기 식민주의 등의 담론을 이해하며 특히 각 지역 미술에 이를 적용한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학생 개인의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Asian cultures and arts became a subject matter of a newly formed discipline with the rise of Western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nd art history, which led to a variety of theoretical approaches. This course discusses the methodology and historical changes in the studies of Asian cultures and arts through the study of critical texts, including articles and books.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tudents' individual studies, this course will be examining discourses in Orientalism,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in addition to Western art historical theories, and how such discursive traditions were applied to cultures and arts of different regions.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M2641.000900 아시아의 여성과 젠더 3-3-0

Women and Gender in Asia

이 과목은 여성과 젠더의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대학원 과목이다. 유럽인들에 의한 아시아(혹은 오리엔트) 인식이 여성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 각 지역의 여성성과 남성성, 젠더 관계의 이슈들을 짚어본 후, 이러한 이슈들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역동 속에서 어떠한 맥락을 취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간 비교를 도모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며, 학생의 지역 전공에 따라 특화된 연구를 시도하도록 장려한다.

This graduate course aims to examine Asia in terms of women and gender. It explores how the European perception of Asia (or the Orient) is closely related with femininity. In addition, we will be examining issues involving femininity, masculinity and gender relations in Asia, and furthermore, how these issues are contextualized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between Asia and Europe. We will attempt comparisons between regions so that each region can be understood more deeply, and will encourage students to conduct specific research in regions of their own interests.

M2641.001000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다. 아시아 언어문명에서 수강생의 논문 작성을 위한 주제와 연구방향 선정, 국내외 자료수집,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논문요지 발표 및 최종 원고 집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도교수와 토론하고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문 완성을 목표로 삼는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graduate students preparing their dissertation. Students will decide on a topic and methodology in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nd will conduct research, structure the dissertation, present and submit their final writings with the guidance of a faculty member.

M2641.001100 일본 문학 연습 3-3-0

Seminar in Japanese Literature

이 강좌는 수강생이 일본문학을 접하는 시각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작품의 깊이 읽기 훈련과 더불어 일본문학과 관련해서 자명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한 도전적인 고찰을 병행한다. 전근대기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문학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메이지 후기에 제도화된 일본문학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민족적, 문화적 특질에 관한 담론을 생산해왔는가? 한문학 또는 서양문학은 일본문학의 특질 형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와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This course is structured to help students acquire independent perspectives and methods in studying Japanese literature. It will encourage in-depth readings of literary works and stimulate students to challenge and reflect upon conventional approaches to Japanese literature. The course is organized according to thematic foci such as: How did the role of literature shift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pre-modern to modern era? How did Japanese literary studies, formed during the late Meiji period, produce discourses on the nat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 How was Western literature or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volved in the making of Japanese literature?

M2641.001200 일본 문명 연습 3-3-0

Seminar in Japanese Civilization

이 강의에서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사회의 변모 양상을 문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문명’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당시의 계몽담론 및 예술 표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ociety around the Meiji period, with a strong emphasis on the idea of “civilization.” The concept of “civilization” was imported from the West, and this course examines and reconsiders the socio-cultural changes that the concept has brought, through the study of Enlightenment discourses and art expressions during this period.

M2641.001300 인도 문학 연습 3-3-0

Seminar in Indian Literature

이 과목은 인도문학 연구에 중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원서 또는 영문번역서 강독과 함께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 외에도 이 과목의 목표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인도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가 지어지고 유포되었던 시기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며, 텍스트의 정본이 구축되며 비평 또는 수정되는 과정까지 고찰할 것이다. 또한 필독자료를 통해 “문학”을 “신화”와 “역사”, “경전”과 따로 분류하는 현대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재고하고자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opics relevant to the study of Indi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close reading of primary texts (either in its original language or in translation), and on studying contemporary scholarship relevant to these texts. Alongside textual analysis itself, however, the primary purpose and value of this course will be to understand the workings of various genres of Indian literature, each of which has distinctive features. Understanding how to properly read Indic texts involves investigating the socio-historical contexts in which these texts are composed and received, and also into the process by which textual canons are formed, maintained, critiqued and modified. The readings in the course will therefore provide occasions to rethink the category of “literature” itself, alongside other categories of “myth”, “history” and “religion.”

M2641.001400 인도·동남아시아사 연습 3-3-0

Seminar in Indian and Southeast Asian History

이 과목은 근현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 특히 근대사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다. 학생들은 근대 이전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회의 형성, 종교·문화의 상호 연관성, 상업의 시대”시기 국제무역을 통한 인도·동남아시아 사회의 발전, 유럽 식민지배와 탈식민지화를 거치면서 발생한 두 지역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연구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도, 동남아시아 사회의 자율성(autonomy), 문화의 국제성, 일상정치와 권력관계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토론한다.

This course i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modern) history of India and Southeast Asia. Students will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pre-modern Indian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religious linkage between the two regions, development of Indian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in the “Age of Commerce”, as well as po-

litical and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under European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in both regions. Students will discuss topics of the autonomy of Indian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internationality of their cultures, and everyday politics and power relations through reading diverse sources.

M2641.001500 동남아시아 문명 연습 3-3-0

Seminar in Southeast Asian Civilization

이 수업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부제에 따른 소주제를 탐구한다. 탈식민지기 이후 동남아시아 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 사회관계, 전쟁, 정치적 갈등, 환경문제 등의 배경과 핵심요소를 분석하고, 이런 현상들과 식민지배기 혹은 “전통” 동남아시아 사회의 유산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This course will explore subject matters of the subtitled course, with the aim of examining divers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features in Southeast Asian societies. It explores the background and main elements of diverse cultural phenomena, social relations, wars, political conflict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e decolonization, and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henomena and the legacies of colonial or “traditional” Southeast Asian societies.

M2641.001600 근대 이슬람 연습 3-3-0

Seminar in Modern Islam

근현대 서아시아와 이슬람권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업들을 포괄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과목으로, 이슬람과 근대성, 종교집단간 관계와 종파주의, 정치적 이슬람의 현대적 진화 등 대학원 수준의 여러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개설할 것이다.

This course is a graduate level seminar concerning diverse

topics in modern West Asia and the Islamic world, such as Islam and modernity, relations between religious communities and sectarianism, or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political Islam, depending on student demands.

M2641.001700 서아시아 문명 연습 3-3-0

Seminar in West Asian Civilization

이 과목은 서아시아 문명의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에 대한 수업들을 포괄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과목으로, 고대 오리엔트 문헌학, 초기 이슬람 관련 1차 사료 연구, 전근대 서아시아 문학 등 대학원 수준의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를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개설할 것이다.

This course may be offered as a graduate level seminar in humanities that can deal with one of diverse topics in West Asian civilization, such as philology of ancient orient, primary sources for the study of early Islam, or premodern West Asian literatures, depending on student demands.

M2641.001800 인도 문명 세미나 3-3-0

Seminar in Indian Civilization

이 과목은 인도 문명에 대한 인문학적 주제를 포괄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과목으로, 인도 문헌학과 문학, 인도 고중세 및 전근대 예술, 영국 식민 통치 시기에 나타난 다양한 정치, 종교, 사회적 갈등의 양상 등 대학원 수준의 강좌를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개설할 것이다.

This course will be offered as a graduate level seminar in humanities that can explore one of the diverse topics in Indian civilization, including Indian philology and literature, ancient and medieval, pre-modern Indian arts, or various political, religious, social conflicts brought by British colonial rule, depending on student demands.